

# 비혼주의 발표문

안녕하세요. 저희 1팀은 오늘 현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문화적 변화로 주목받고 있는 비혼주의를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 더 이상 인생의 필수 단계가 아닌 선택의 문제가 된 지금, 비혼주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 1. 주제 선정 배경

먼저 한국사회에서 결혼을 바라보는 인식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 성인은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취업난과 주거비 상승, 불안정한 고용, 소득 정체 등 구조적 요인이 결합되면서, 청년층은 결혼을 미루는 수준을 넘어 결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2024)은 이러한 흐름이 단순 감각이 아니라 실증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회문화 연구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 개인 취향이 아니라 사회와 경제적 구조 변화의 반영이라고 분석합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비혼주의를 주제로 탐구하고자 하였습니다.

## 2. 비혼주의의 개념 및 현황

다음으로 비혼은 '미혼'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미혼은 단지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지만, 비혼은 앞으로도 결혼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선택과 의지를 포함합니다.

통계적 지표 역시 변화의 속도를 보여줍니다. 통계청(2024)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1인가구 비율은 35.5%에 달합니다.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2024)의 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성의 41.5%, 미혼 여성의 55.4%가 결혼 의향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김수영(2022)은 여성의 비혼 선택에는

육아와 돌봄의 성 역할 부담, 경력 단절 우려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비혼이 개인 차원의 사소한 트렌드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임을 보여줍니다.

## 3.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

먼저 긍정적 측면입니다. 비혼은 개인의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 확대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기계발, 직업 전문성, 여행, 취미 등 삶의 영역을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2023)는 청년 비혼의 가장 핵심적인 효용이

“삶의 자율성 강화”라고 분석합니다. 반면 부정적 측면도 존재합니다.

특히 비혼 증가가 저출산을 가속화하고,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세대 재분배 불균형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연구원 보고서(2010)는 결혼 감소가 주택가격, 고용불안, 사회복지 지출 증가 등과 복합적으로 연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부산대 강혜경(2019)은 특히 비혼 여성 1인가구는

사회적 고립과 구조적 위험에 취약하다고 지적합니다. 즉 비혼주의는 개인적 차원의 자유이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발생시킵니다.

#### 4. 종교적 관점

종교적 관점에서도 결혼과 비혼을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씩 다릅니다. 기독교에서는 결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지지만, 동시에 독신 역시 신앙에 더 집중하기 위한 의미 있는 선택으로 존중받기도 합니다. 불교는 결혼과 출산을 긍정하면서도 해탈을 위한 출가 또한 높은 의미를 가진 선택으로 인정합니다. 반면 이슬람교는 결혼을 종교적 의무로 보고 독신보다 결혼을 권장하는 경향이 강하며, 힌두교는 결혼을 개인의 도덕적 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신성한 행위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 속에서도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점은 ‘사랑’, ‘책임’,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가치를 중심에 둔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비혼주의 역시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의 정당한 삶의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 5. 비혼주의 찬성 논리

비혼주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논리는 여러 학술 연구에서 확인됩니다.

김수영(2022, 서울대학교)은 초저출산 사회에서 여성들이 비혼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성 역할 불평등과 돌봄 부담의 구조적 편향을 제시합니다.

즉, 결혼이 ‘사적 관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에게 책임을 집중시키는 불평등 구조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또한, 김석호 외(2023)는 비혼 청년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면서, 비혼 청년의 핵심 동기로 ‘개인의 자유’, ‘자기실현’, ‘삶의 만족감’을 제시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는 선택이 오히려 삶

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유진(2017)의 연구에서도 비혼을 선택한 청년층은 결혼을 대신하는 관계와 생활방식을 이미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즉, 비혼주의는 다른 행복 방식의 추구이며, 삶의 자율성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학술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비혼주의를 '문제적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6. 비혼주의 반대 논리

반대로 비혼주의의 확산은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이상호와 이상현(2010)의 연구는 결혼 감소가 인구구조 불안정 – 생산가능인구 축소 – 경제성장률 하락 – 복지지출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부산대학교 강혜경(2019)의 연구에서는 비혼 여성 1인가구의 경우 사회적 배제, 경제적 취약성, 정서적 고립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특히 주거비 부담, 의료 접근성, 범죄 위험 노출 등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문제로 나타납니다. 김석호 외(2023) 역시 비혼이 증가하면 세대 재생산 체계가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붕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즉, 비혼주의 확산은 개인 차원에서는 자유로움이지만 사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한 위험 요소로 평가됩니다.

## 7. 비혼주의 논쟁의 핵심

여러 연구들은 비혼 논쟁의 중심에 존재하는 갈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김수영(2022)은 비혼 논쟁의 본질을 개인의 행복 추구권과 사회적 책임의 부담 사이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충돌이라고 분석합니다. 또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2023)는 비혼과 결혼을 둘러싼 갈등이 "가치관 변화 속도"와 "사회제도 변화 속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개인의 사고는 이미 미래형인데 제도는 여전히 과거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대 강혜경(2019)은

이 논쟁을 사회가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변화에 대한 정책적 공백, 제도적 미비, 인식 충돌로 해석합니다. 결국 비혼주의 논쟁은 도덕적과 개인적 논쟁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지속성이 충돌하는 가장 본질적인 영역입니다.

## 8. 해결 방안

비혼주의가 개인의 선택 차원을 넘어 사회와 경제 구조의 변화를 동반한다는 점

에서, 여러 연구는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상호와 이상헌(한국은행, 2010)은 비혼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 및 고용 안정 정책이 핵심 변수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즉, 청년층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배경에는 가치 문제가 아니라 경제 구조적 제약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박미선(국토연구원, 2018)은 향후 1인가구의 급증을 고려할 때 주거 정책 방향은 '가족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비혼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 변화입니다. 김수영(서울대, 2022)은

여성이 비혼을 선택하는 핵심 원인이 돌봄과 가사노동 불균형에 있다는 점에서 성평등 돌봄 시스템 구축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김석호 외(2023)는

청년 비혼의 다양화 흐름 속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가족 형태 확대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즉, 결혼 중심의 제도만으로는 더 이상 인구 구조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혜경(2019)은 특히 비혼 여성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를 막기 위해 안전, 건강, 사회적 연결망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즉, 비혼주의를 억압하거나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 안정, 주거 안정, 성평등 강화, 가족 개념 확장, 1인가구 맞춤형 복지 강화를 통해 사회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9. 결론 및 토론

마지막으로 국내외 학술 연구는 공통적으로 비혼주의를 단순한 개인적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김수영(2022)은 비혼 확대는 사회 구조 변화의 반영이며, 이는 "개인의 선택에 대한 권리 강화 과정"이라고 평가합니다. 반면 한국은행 연구원(2010)은 비혼과 저출산이 장기적인 국가 경제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가족자원경영학회(2023)는 비혼주의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결혼·출산·가족 체계가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전환점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비혼주의는 개인의 행복 추구 방식인 동시에 사회적 위험을 동반하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그리고 비혼과 결혼은 대립적 선택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며 모두 존중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사회는 변화된 가치관에 맞게 제도적 대응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1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문헌:

1. 정여진·손서희. (2024). 『비혼 청년의 결혼계획 및 중요도에 따른 비혼 유형과 유형별 특성』.

<https://journal.khma.kr/xml/41383/41383.pdf>

2. 김혜정. (2015). 『비혼 여성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https://women.pusan.ac.kr/dext5editordata/2019/12/20191202\\_160338581\\_74470.pdf](https://women.pusan.ac.kr/dext5editordata/2019/12/20191202_160338581_74470.pdf)

3. 김수영. (2022). 『초저출생 사회, 여성은 왜 비혼과 비출산을 선택하는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https://law.snu.ac.kr/data/hb\\_award/08/hb\\_award\\_08\\_Kim\\_Soo\\_Young\\_v1.1.pdf?ver=221201](https://law.snu.ac.kr/data/hb_award/08/hb_award_08_Kim_Soo_Young_v1.1.pdf?ver=221201)

4. 국가데이터포털. (2024).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 의식 변화』.

[https://mods.go.kr/board.es?act=view&bid=219&list\\_no=426708&mid=a1030101000&utm\\_source=chatgpt.com](https://mods.go.kr/board.es?act=view&bid=219&list_no=426708&mid=a1030101000&utm_source=chatgpt.com)

5. 강유진. (2017). 『성인남녀의 비혼 유형 영향 요인』.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78788&utm\\_source=chatgpt.com](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78788&utm_source=chatgpt.com)

6. 통계청. (2024).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2164](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2164)

7. 인구보건복지협회. (2025). 『제2차 국민인구행태조사(2024년) 결과 발표』.

<https://www.ppfk.or.kr/promotion/news-detail/554>

8. 강혜경. (2019). 『비혼 여성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https://women.pusan.ac.kr/dext5editordata/2019/12/20191202\\_160338581\\_74470.pdf](https://women.pusan.ac.kr/dext5editordata/2019/12/20191202_160338581_74470.pdf)

9. 박재현. (2024.11.17). 『확 바뀐 20대 결혼·출산관...5명 중 2명은 비혼 출산 가

능』.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116040500002>

10. 권성진. (2024.11.12). 『비혼 절반 육박...주거 해결이 저출생 대책』.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41112111243962>

11. 레포트월드. (2025). 『독신주의, 기독교와 윤리, 과연 성경적인가』.

<https://m.reportworld.co.kr/other/o8556903>

12. 불교닷컴. (2024). 『불교는 결혼·출산을 어떤 의미로 보나』.

<https://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59676>

13. 불교신문. (2016). 『삶의 포기 아닌 해탈의 길, 출가』.

<https://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145>

14. 김석호 외. (2023). 『비혼 청년의 비혼 유형과 유형별 특성』.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https://journal.khma.kr/xml/41383/41383.pdf>

15. 이상호·이상현. (2010). 『저출산·인구고령화 원인 연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https://www.bok.or.kr/eng/main/main.do>

16. 박미선. (2018).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 방안』. 국토연구원.

<https://library.krihs.re.kr/library/10120/contents/6161385>

17. 통계청. (2024). 『2024 사회 및 인식 변화 종합 보고』.

<https://mods.go.kr/index.es?sid=a1>